

2026/06/18

[Fixed Income]

백윤민 수석연구위원 yoonmin1983@iprovest.com
 김태은 선임연구위원 taeun.kim@iprovest.com

6월 FOMC: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 다만, 실제 인상에는 신중할 것

- 6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50%~3.75%에서 동결.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중동 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해 특정 섹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공급충격을 일부 반영하면서 여전히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 금번 FOMC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는 있는 정보들이 제한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연준 통화정책 운영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란 점.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시장금리도 금리인상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연준이 실제로 긴축 전환에 나서기까지는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6월 FOMC, 연방기금 목표금리 동결. 금리 점도표 통해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

6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50%~3.75%에서 동결. 투표권을 보유한 연준위원 12인 전원 이 이번 금리결정에 동의. 성명서는 이전대비 매우 간결해지고, 포워드 가이드스 성격의 문구는 삭제.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중동 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해 특정 섹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공급충격을 일부 반영하면서 여전히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도표 1] 2026년 4월, 6월 FOMC 성명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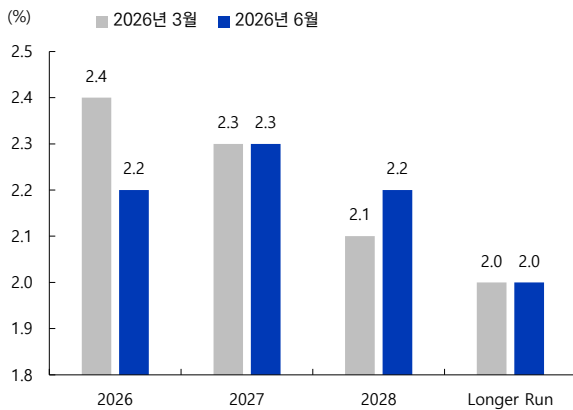
	2026년 6월	2026년 4월
정책결정	- 연방기금 목표금리 3.50~3.75%로 동결	- 연방기금 목표금리 3.50~3.75%로 동결
경제여건 및 인플레이션 요인 평가	- 경제활동은 중동 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속도로 확장.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는 강한 흐름을 보임. 고용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에 부합하고 있으며, 실업률의 변화는 제한적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원회의 2% 목표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포함해 특정 섹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공급충격을 일부 반영한 결과.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	-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조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낮았고,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하지 않았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높아짐 -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완전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음. 중동 이슈의 전개 상황이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에 기여. 위원회는 이중책무 (dual mandate) 양쪽 모두에 대한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금리정책 요인	- 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50~3.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목표들을 지원하고,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50~3.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추가적인 연방기금 목표금리 조정 규모와 시점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 전망 변화, 위험에 대한 균형 등을 신중하게 평가 - 위원회는 적정한 통화정책 설정을 위해 경제전망 정보들이 시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위원회는 완전고용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집중,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금융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
대차대조표 정책	-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재확인	-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
찬성 / 반대 위원	- 찬성: 투표권을 보유한 위원 12인 전원	- 찬성: Jerome Powell, John Williams, Michael Barr, Michelle Bowman, Lisa Cook, Philip Jefferson, Anna Paulson, Christopher Waller - 반대: Stephen Miran (기준금리 25bp 인하) - 반대: Beth Hammack, Neel Kashkari, Lorie Logan (기준금리 동결에는 찬성하지만,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 포함은 반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은 6월 경제전망 자료(SEP)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2%로 하향 조정하고, 2028년 전망치를 2.1%→2.2% 상향 조정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음. 고용과 관련해서도 올해 실업률 전망치가 4.4%→4.3%로 소폭 하향 조정된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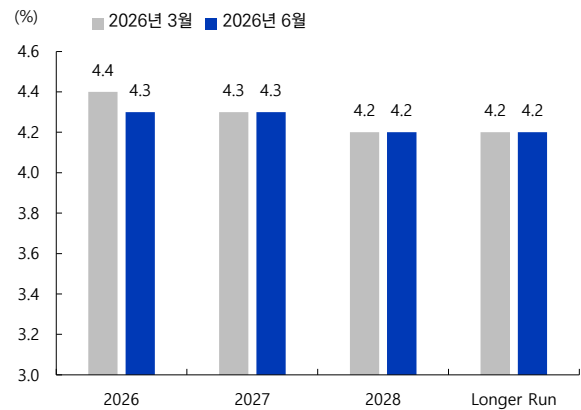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올해 헤드라인과 근원 PCE 전망치를 각각 2.7%→3.6%, 2.7%→3.3%로 큰 폭 상향 조정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

[도표 2] 2026년 6월 SEP: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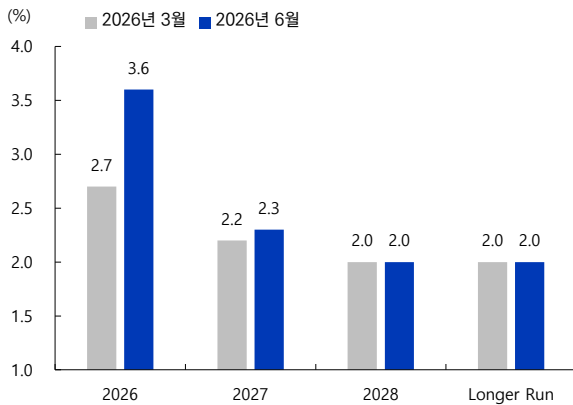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6년 6월 SEP: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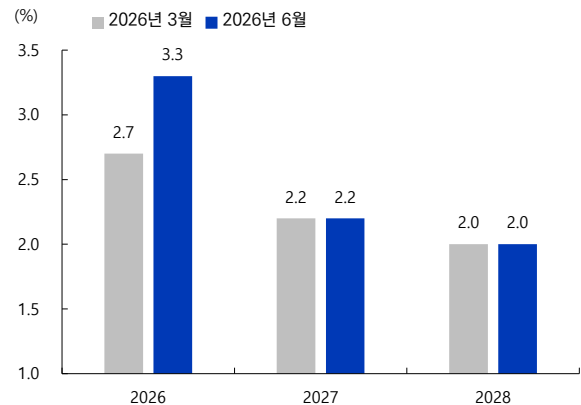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2026년 6월 SEP: PCE 물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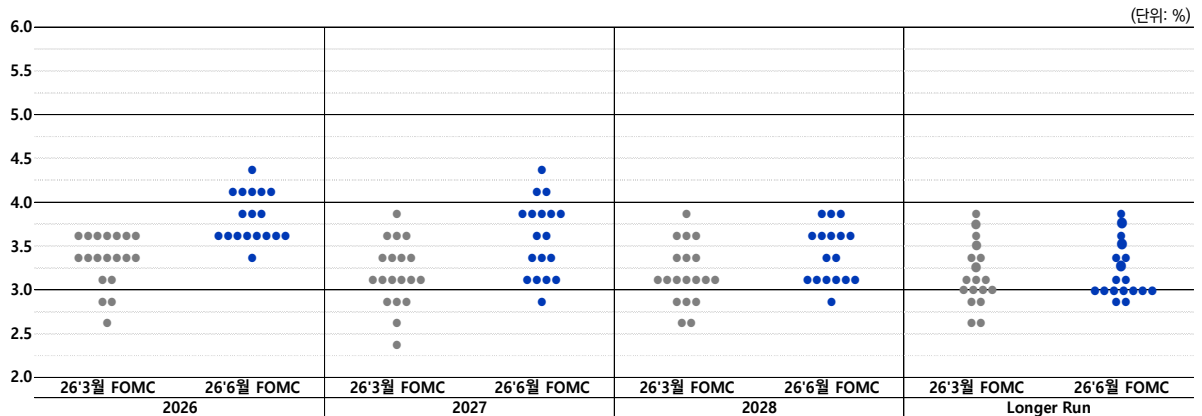
[도표 5] 2026년 6월 SEP: 근원 PCE 물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에서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경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26년 금리 점도표 중간값은 3.4%→3.8%로 상향 조정됐으며, 2027년, 2028년 중간 값도 각각 3.1%→3.6%, 3.1%→3.4%로 상향 조정.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금리 점도표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

[도표 6] 2026년 3월, 2026년 6월 금리점도표 비교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6월 FOMC,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다만, 실제 인상까지는 신중함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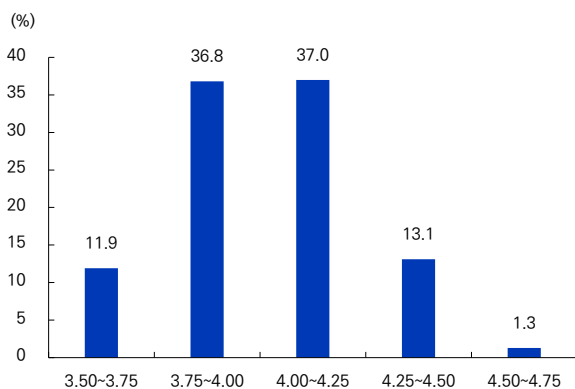
6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다만, 이전대비 매우 간결해진 성명서와 포워드 가이드스 성격의 문구는 삭제, 짧아진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연준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인플레이션 프레임 워크, 기존 데이터 활용, 생산성 및 고용 관련 TF를 통해 연준의 운영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금번 FOMC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는 있는 정보들이 제한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연준 통화정책 운영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라는 점. 연준은 경제전망(SEP)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결국 물가 제어를 위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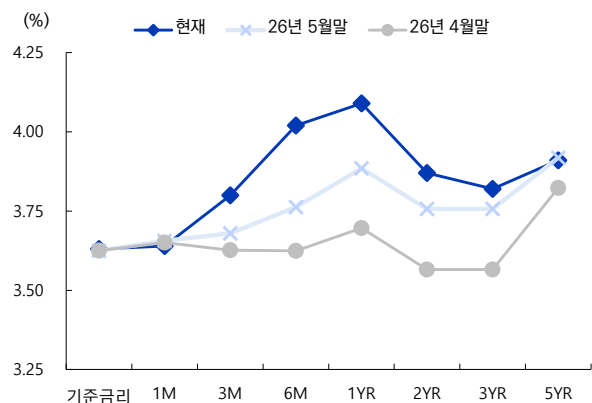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시장금리도 금리인상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 워시 의장도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이라고 언급. 연준이 금리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연준이 실제로 긴축 전환에 나서기까지는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여전히 중동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등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도표 7]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6월 FOMC 기자간담회 Q&A

Q. 오늘 발표한 5개 태스크포스의 추진 일정은?

A. 태스크포스별로 일정은 다를 수 있음. 앞으로 몇 주 안에 태스크포스들이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가을부터는 각 태스크포스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초기 프레임과 추가 정보가 나오기 시작할 것임. 대부분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

Q.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검토에 2% 물가 목표 재검토도 포함되는 것인지?

A. 2% 물가 목표 자체는 검토 대상이 아님. 2%는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임. 지금 중요한 것은 소수 점 왼쪽의 숫자 2임. 2% 목표 달성 의지와 노력을 재입증할 때까지 이를 재검토할 이유가 없음

Q. 연준이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SEP상 코어 PCE가 연말 3%대에 머물고 2% 목표 달성도 2028년으로 제시됨. 이 상황에서 일회성 물가 충격을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 건지?

A. 연준은 2% 목표를 달성할 것. 다만 이번 성명서에서 포워드 가이드를 제거했기에 현재 다음 회의 결정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다음 회의는 6주 뒤 열릴 예정이며, 그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

Q. 현재 정책금리가 얼마나 제약적이라고 보는지?

A. 주택시장을 보면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음. 전반적으로 정책의 제약성은 부문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금리와 대차대조표 정책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음. 이 문제는 대차대조표 태스크포스에서도 살펴볼 예정

Q. 성명서에서 포워드 가이드를 삭제했지만 점도표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함. 시장은 이를 가이드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점도표의 향후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점도표 문제도 커뮤니케이션 태스크포스가 검토할 사안임. 위원들의 전망은 6주 뒤는 물론 며칠 뒤에도 바뀔 수 있음. 점도표는 강한 확신을 담은 정책 약속이 아니라 각 위원의 기본 시나리오임. 본인은 점도표가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음. 연말까지 커뮤니케이션, 기자회견, 점도표, 회의 방식, 의사록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

Q. 점도표상 전망이 갈린 것은 위원회 내부 분열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는지?

A. 연말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견해가 나뉜 것은 맞음. 다만 이는 향후 시나리오와 데이터 전개에 대한 판단 차이임. 오늘의 결정과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

Q. 앞으로 기자회견을 매 회의마다 계속 진행할 것인지? 기자회견은 유용한 소통 수단인지?

A. 기자회견은 가계, 기업, 시장과 소통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다만 기자회견을 열 때는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함.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나 메시지가 있을 때 기자회견을 활용할 것.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검토 과정에서 판단할 것

Q.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경로를 어떻게 보는지? 현재 물가 상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영향 중심인지, 아니면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도 우려하는지?

A.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임. 일부는 에너지 등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반영하고 있음. 위원회가 현재 밝힐 수 있는 판단은 성명서에 담긴 내용임. 지난 5년간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이를 바로잡을 것

Q. 포워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닌지?

A. 금융시장은 경제 데이터를 직접 해석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함. 시장이 연준이 이 데이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을 묻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효율성이 떨어짐. 시장과 연준이 각각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함

Q. 이번 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A. 한 명이 제안했으나, 그 제안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음.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

Q.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책무를 감안하면 금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A. 성명서에 담긴 내용 외에 추가로 말할 것은 없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명서의 문구와 사실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봄

Q. 2년물 금리 흐름을 보면 시장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듯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A. 발표 직후 몇 분 또는 몇 시간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음. 첫 몇 분이나 며칠간의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가계, 기업이 연준이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Q. 강한 고용, 높은 인플레이션, 견조한 GDP, 추가 금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정책금리가 제약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A. 주택 부문에서는 제약성이 보이지만, 다른 부문은 그렇지 않음. 고용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음. 강한 성장, 낮은 물가, 강한 고용은 연준이 제 역할을 하면 서로 양립할 수 있음. 위원회가 오늘 확인한 것은 물가 안정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점

Q. 포워드 가이드를 폐지했는데, 물가 부담을 체감하는 대중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A. 연준이 특정 상품 가격을 직접 움직일 수 없음. 다만 유가, 소고기, 달걀, 우유 등의 가격 변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2차, 3차 파급 효과를 막는 것은 연준의 매우 중요한 임무

Q. AI 관련 투자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고 있고 생산성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날 수 있음. 현재 AI는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A.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인프라 투자에서는 수요 측면이 분명하게 집계되고 있으며 GDP에도 반영되고 있음. 반면 공급 능력이 언제, 어느 정도 확대될지는 불확실하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이 문제도 테스크포스에서 다룰 사안임

Q. SEP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진 것이 이란 전쟁 때문인지?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이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A. 위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 일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가 현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봤고, 일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음. 본인은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음. 1차 및 2차 파급 효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었음. 6주 뒤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들어오는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일 것

Q. 최근 몇 달간의 고용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현재 노동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위원회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음. 일부 위원은 그보다 더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한 번의 지표보다 3개월 또는 6개월의 추세가 더 중요함. 생산성에 기반한 강한 고용 성장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부분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